

# K리그1 새 시즌 위한 본격 담금질

## 광주FC 태국 치앙라이 캠프

연습경기 하며 체력·전술훈련  
외국인 선수들도 첫 호흡 맞춰  
2월 25일 수원서 K리그1 복귀전

“몸만 힘들었는데 머리도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다”면서 웃음을 터트린 광주FC의 주장 안영규. ‘이정호호 시즌 2’가 시작됐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2차 동계 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 선수단이 14일 스파이크콘을 단단히 조여냈다. 이날 선수들은 레옹 치앙라이 스타디움에서 태국 캠프 후 첫 자체 연습경기를 위해 진영을 짰다.

연습 경기는 실전보다 더 실전 같았다. 거친 몸싸움이 전개됐고, 이정호 감독은 실재 없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 선수들에게 주문을 내렸다.

이 경기는 선수들은 물론 이정호 감독에게 ‘테스트 무대’였다.

지난해 K리그2 ‘챔피언’이 되면서 1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광주는 더 빠르고 더 강한 무대에서 ‘도전자’가 됐다.

달라진 무대를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만큼 선수들은 치앙라이에서 더 강한 체력과 몸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고, 이정호 감독은 1부 리그에서 통할 “2023 버전” 전술을 주입하고 있다.

이 연습경기를 통해서 광주는 새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내디뎠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양팀에 같은 전술을 지시했다. 새로 익히고 있는 전술의 장단점을 동시에 확인하기 위한 방안.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경기가 끝나고 이 정호 감독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안 맞고,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아직은 익숙치 않은 변화지만 딱 맞는 웃음 입은 선수도 있다.

이 경기에서 이순민과 함께 득점포를 가동한 엄



광주FC선수들이 14일 태국 레옹 치앙라이 스타디움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성은 “작년보다 플레이하는 게 더 편하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전술인 것 같아서 재미있었다. 처음이니까 연습경기하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새 외국인 선수들도 전원 그라운드에서 새 팀에서 첫 호흡을 맞췄다.

헤이스가 이탈했지만 광주는 지난 시즌 중반 팀에 합류해 차원이 다른 실력을 보여준 ‘주포’ 산드로,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빈 ‘살림꾼’ 아론과 함께 알바니아 출신의 ‘특급 원어’ 아사니, ‘브라질 피니셔’ 토마스에 이어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철벽 수비수’ 티모까지 영입하면서 K리그1 팀에 맞는 외국인 선수의 위용을 갖췄다.

다양한 경력과 실력의 외국인 선수들은 산드로를 중심으로 일체감까지 적응을 끝내고 광주의 색을 흡수하고 있다. 특히 산드로는 광주 역사상 첫 외국인 선수 부주장을 맡아 그라운드 안팎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캠프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가게 됐다. 본격적인 실전 준비와 함께 베스트 11을 위한 경쟁도 시작했다. 무엇보다 2023시즌 경기 일정도 발표되면서 선수들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새 시즌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광주는 오는 2월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가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K리그1 복귀전을 치른다. 3월 5일 오후 4시 30분에는 안방에서 FC서울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올 시즌에도 부주장 이순민·산드로와 함께 팀을 이끌게 된 ‘우승 주장’ 안영규는 “리그 일정을 보는 순간 확실히 1부에 올라온 게 실감 났다. 어느 한 팀 쉽게 볼 팀이 없고 그렇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할 상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계 훈련 잘 준비해서 개막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태국 치앙라이=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박항서 ‘라스트 댄스’ ... 베트남, 우승컵 들어올릴까

## 오늘밤 동남아월드컵 결승 2차전

박항서(64·사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사령탑으로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16일 밤 9시 30분(한국시간) 태국뻬툼타니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태국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베트남과 태국은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2-2로 비겼다. 이 때문에 2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유리한 쪽은 태국이다.

홈 경기를 남긴데다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2차전에서 0-0, 1-1로 비기더라도 우승컵은 태국 차지가 된다.



컵에서 우승했고, 당시 준결승에서 베트남을 2-0으로 물리쳤다.

반면 지난해 5월 열린 동남아시아(SEA) 게임 결승에서는 베트남이 1-0으로 태국을 꺾어 한 차례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 9월 베트남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고, 이전까지 동남아에서도 중위권

팀이던 베트남을 지역 최강팀으로 조련했다. 2018년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에 10년 만에 우승컵을 안긴 박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해 중국을 꺾고 일본과 비기는 등 선전했다.

2019년과 지난해 SEA 게임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냈다.

이런 빛나는 성과로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은 이달 초에는 베트남 스포츠 당국이 선정하는 베트남 최고의 외국인 지도자상도 받았다.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꾸미는 감독은 1차전을 끝낸 뒤 인터뷰에서 “태국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가 (2차전을) 이기면 우승”이라고 필승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 KIA, 2월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호랑이 군단’이 2월 1일 2023시즌을 위한 본격 담금질에 돌입한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30일 미국 애리조나로 출국해 2월 1일부터 23일(이하 현지 시간)까지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지난 2020년 플로리다 스프링캠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해외 전지훈련이다.

이번 캠프는 김중국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9명, 선수 36명 등 5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포지션 별로는 투수 18명, 포수 4명, 내야수 8명, 외야수 6명이며 2023년 신인 가운데에서는 좌완 윤영철이 유일하게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는 KIA는 이후 일본 오키나와로 장소를 옮겨 2차 캠프를 치른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을 소화하게 되며 2월 24일 일본으로 건너가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3월 9일까지 본격적인 실전 준비와 ‘육성 기리기’에 나선다.

또 KIA는 2월 19일 캠프지에서 진행되는 WBC 대표팀과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연습 경기를 소화하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습경기 일정은 2월 21·22일 NC 다이노스(애넥스 필드), 2월 28일 한화 이글스(킨 구장), 3월 1일 삼성 라이온즈(아카마 구장), 3월 3일 롯데 자이언츠(킨 구장), 3월 5일 삼성(킨 구장), 3월 7일 한화(고진다 구장)로 훈련과 연습 경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023 KIA 스프링캠프 명단

▲감독: 김중국 ▲코칭스태프(9명): 진갑용 정명원 광정철 김상훈 이범호 박기남 조재영 이현곤 홍세환 ▲투수(18명): 김기훈 김대우 김승현 김유신 송후섭 양현종 유승철 윤영철 윤중현 이의리 이준영 이태규 임기영 전상현 정해영 최지민 메디나 앤더스 ▲포수(4명): 김선우 신범수 주효상 한승택 ▲내야수(8명): 김규성 김도영 김선빈 류지혁 박찬호 변우혁 홍중표 황대인 ▲외야수(6명): 김석환 김호영 나성범 이창진 최형우 소크라테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팀이던 베트남을 지역 최강팀으로 조련했다.

2018년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에 10년 만에 우승컵을 안긴 박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해 중국을 꺾고 일본과 비기는 등 선전했다.

2019년과 지난해 SEA 게임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냈다.

이런 빛나는 성과로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은 이달 초에는 베트남 스포츠 당국이 선정하는 베트남 최고의 외국인 지도자상도 받았다.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꾸미는 감독은 1차전을 끝낸 뒤 인터뷰에서 “태국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가 (2차전을) 이기면 우승”이라고 필승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 바둑 1위 신진서 9단 31연승

## 이창호 기록 18년 만에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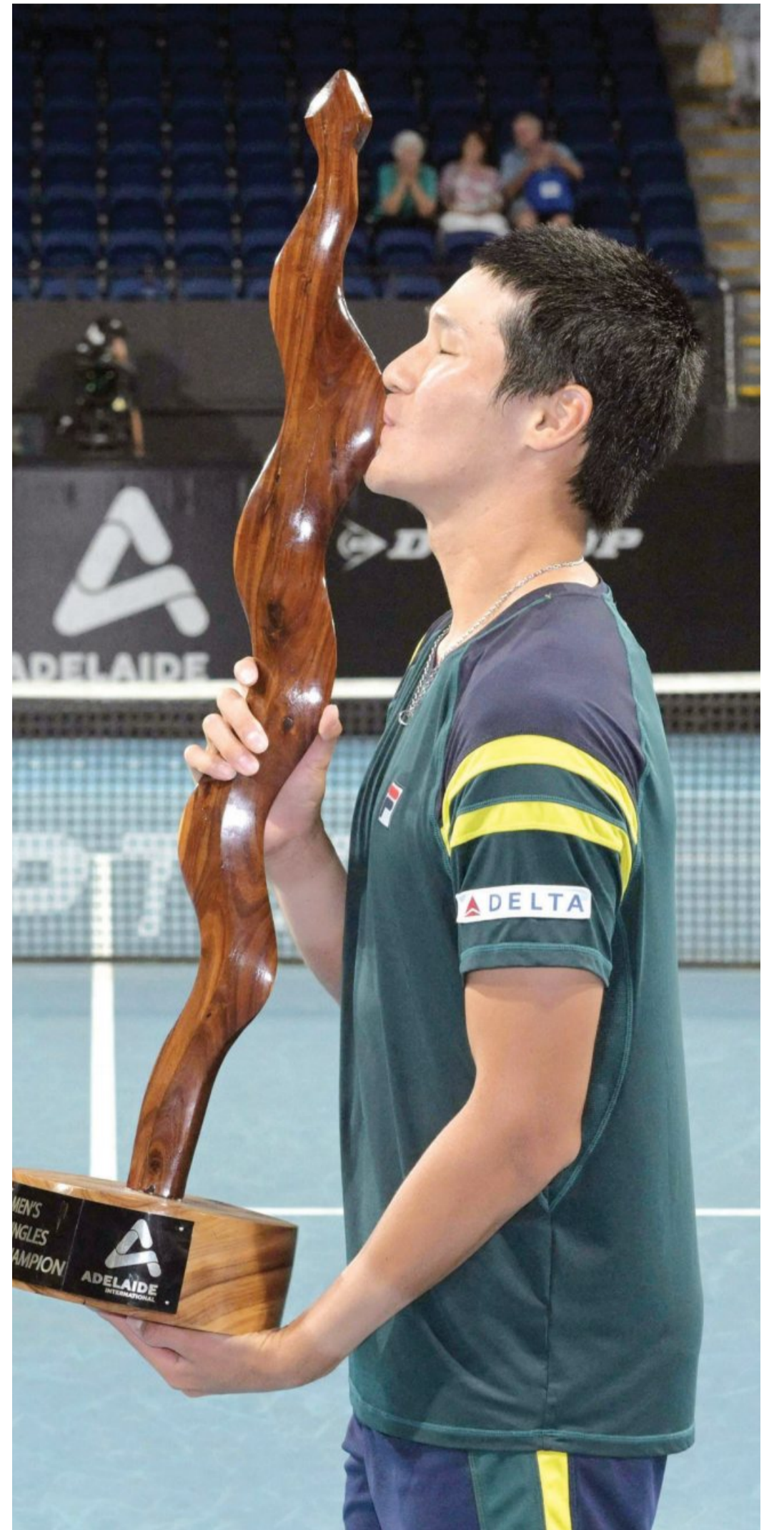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23·사진) 9단이 이창호(48) 9단의 종합기전 연승 기록을 18년 만에 갈아치웠다.

13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신진서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2023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난 가리고 2라운드 2경기에서 삼재의(25) 6단에게 194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신진서는 2021년 3월 27일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부터 시작한 종합기전 연승 기록을 31연승으로 늘렸다.

이창호가 2005년 2월 26일에 세웠던 30연승 기록을 18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제한기전까지 범위를 넓혀 계산할 경우 단일기전 최다 연승 기록은 최정 9단이 보유하고 있다. 그는 중국 여자 을조리그에서 현재 39연승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우가 14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 권순우, 한국 테니스 새 역사 ATP투어 통산 2회 우승 달성

##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우승

남자 테니스 간판 권순우(84위·당진시청)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통산 2회 우승을 이뤄냈다.

권순우는 14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총상금 64만2735 달러) 결승에서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구(26위·스페인)를 2시간 42분 혈투 끝에 2-1(6-4 3-6 7-6(7-4))로 제압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2021년 9월 아스타나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2번째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2003년 1월 아디다스 인터내셔널에서 한 차례 우승한 이형택 오픈 테니스단 감독을 제치고 한국인 ATP 투어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권순우는 또 지금까지 출전한 단식 결승에서 2전 2승을 거둬 승률 100%를 기록했다. 권순우가 받는 우승 상금은 9만7760 달러(약 1억2141만원)다.

우승 랭킹 포인트 250점을 받은 권순우는 다음 주 발표될 세계 랭킹에서 순위를 ‘커리어 하이’와 타이인 52위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는 2021년 11월 첫 주 랭킹에서 52위를 찍은 바 있다.

권순우는 이번 대회 예선 2회전에서 토마시 마하치(115위·체코)에게 져 본선 진출이 좌절되는 듯했으나 본선 불참 선수가 생긴 덕에 ‘러키 루저’

로 본선에 합류했다. 은 종계 오른 본선에서 권순우는 세계 랭킹 15위 파블로 카레뇨 부스타(스페인)를 2-1(3-6 6-4 6-4)로 제압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더니 우승까지 차지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ATP 투어 대회 단식에서 러키 루저가 우승한 사례는 이번 대회 권순우까지 10차례에 불과하다.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은 16일 개막하는 새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의 전초전 성격의 대회다.

생애 두 번째 우승으로 기세를 올린 권순우는 이번 호주오픈에서 자신의 메이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권순우는 2021년 프랑스오픈에서 3회전까지 올라간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다. 호주오픈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2회전에 진출했다.

바우티스타 아구는 권순우보다 9살 많은 35세 베테랑이지만 32세이던 2019년에 처음으로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든(최고 9위) ‘대기만성형 선수’로, 여전히 전성기에 있다.

‘무결점의 사나이’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를 3차례나 이긴 것으로도(9패) 잘 알려져 있다.

권순우는 1세트 상대 첫 서브 게임부터 브레이크해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연합뉴스